**요나서 연구 (동강의 쉼터에서 발췌)**

요나는 소선지서(12선지서)중 5번째의 책이다. 열왕기하 14:25이 요나를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연관시키고 있는 연고로 해서 요나서에 있는 이 일들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기간(B.C. 793-753)중에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 :

본서의 저자는 중심인물인 요나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는데, 저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요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지만, 실제 저자는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사상을 피력하기 위해 이러한 등장인물과 소재를 가져온, 무명의 유다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요나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 땅의 과부의 아들로 엘리야를 오랫동안 따라 다녔다고도 한다. 그러나 확인을 할 길은 없다.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 '비둘기'를 뜻한다. 이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25절에 잠깐 언급된다. 그는 현재의 갈릴리에 해당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스불론 땅의 가드 헤벨(Gath-Hepher) 출신이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를 의미하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진실함"을 의미한다. 열왕기하 14장에 여로보암 2세가 요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이 기록은 그의 예언이 행해진 시기나 그가 활동한 때에 대해서 정확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 요나서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나의 활동 시기를 일반적으로 주전 8세기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도 선지자 자신이 본서를 기록했다는 언급이 없다. 전승은 요나가 저자인 것으로 이어 내려 왔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본서가 요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요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요나서는 논란도 많고, 비난도 많이 받은 선지자의 성격과 생애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시켜줄 것이다.

**기록연대 :**

왕하14:25에 따르면 그는 여로보암 2세(B.C. 793-753)가 재위한 때에 예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역 초기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원래 국경까지의 회복을 예언하였다. 따라서 그의 인기가 매우 높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백성들에게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유례 없는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하였다(왕하14:24). 당시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침체된 분위기가 걷히고 민족적 사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완전한 위치에 섰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

한편 호세아, 아모스 등은 이방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였다(호9:3 ; 암6:14).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 이 시기에 앗수르는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나약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쇠퇴한 듯하였으나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위협적 존재였다. 니느웨의 회개는 아마도 아슈르단 3세(B.C. 773-755)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에 걸친 온역과 일식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는데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의 배경 :**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던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왕하 14:23-29). 일찍이 앗수르는 근동에서 군림하는 자리를 차지하였고 예후로 부터 조공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시리아(앗수르)는 아람 족속들을 쳐부순 다음에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대제국이 되기를 희망하던 아시리아가 잠시 쇠퇴해진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일찍이 아람에 속해 있었던 영토를 장악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다른 예언서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죄악이 극심했기 때문에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다. 요나는 후일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적들을 돕는 일에 자신이 쓰여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니느웨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약 5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티그리스강 동쪽 제방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니느웨는 큰 성읍으로서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외곽의 성벽과 내곽의 성벽으로 둘러 싸여 보호를 받고 있었다. 요나가 이렇게 난공불락의 도시처럼 보이는 철옹성에 도착하기 전에 두 가지의 재앙이 이 도시를 덮쳤고(B.C.765과 759), 이 일들은 하느님의 진노의 표징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759년경에 왜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면 안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내용 :**

이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으며, 빨리 전개되고 또한 감동적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교도성인 니느웨로 가서 극심한 죄악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지시하셨다. 이 명령은 선지자를 이방에 보낸 유일한 경우였다. (창10:11)에 처음으로 언급된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는 앗수르 제국의 옛 수도였다. 니느웨는 산헤립에 의해 앗수르의 수도가 되었고,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되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사다리꼴 모양의 이 도시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고 한다. 요나는 이 도시의 큰 죄와 부패에 대해 그 도시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당시 니느웨에는 교만함(사 10:13)과 잔인함(나 3:1,10,19),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습 2:15)가 팽배해 있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 하라 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순종하여 동쪽 니느웨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쪽 다시스로 가는 대담한 이단아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극단(極端)으로 항해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을 잤다. 배가 항해를 시작한 후 폭풍이 바다에 큰 물결을 일으켰다. 겁에 짙린 선원들은 짐들을 배 밖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미친 듯이 기도하였다. 제비를 뽑음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인으로 판명되었다. 요나 자신의 제 안에 따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폭풍이 겨우 그쳤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그는 그때서야 요나는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함 없이 해변으로 인도하셨다. 이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성읍 전체에 재앙의 메시지를 외쳤다.

니느웨 백성들은 진실한 회개의 자세를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멸망의 위협을 제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자신의 예언에 대한 부정으로만 파악하여 여호와께 기도로 불평하였다. 선지자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빨리 자라는 식물을 예비하시고 햇빛을 가려주셨지만, 그날 밤에 벌레로 그것을 시들게 하셨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 결과 요나는 혼곤(昏困)하여 죽기를 구한다. 이 이야기는 요나가 식물에 관심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죄 된 인간의 구원에 관심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함으로 끝맺고 있다.

**내용연구 :**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편으로 도망을 쳤을까?

어떤 학자는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예감했으며, 따라서 니느웨가 소생되면 자기 민족이 그들에 의해 멸망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회개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이 감소될 것을 두려워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나의 자만과 고집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고도 말한다. 사실 요나는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다. 요나는 과거의 예언들을 통해서(호 9:3)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욘 4:2)을 보면 요나는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용서받을 것을 싫어해서 그 곳으로 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요나서를 통한 교훈 :**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서로 사랑하라시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고 깨우쳐 주신다.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신다.(약 2장 26절),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신다.(약 4장 1 ~10절),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다.(벧전 1장 13 ~ 2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신다.(살전 4장 3 ~ 12절),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하신일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사명을 피해 숨은 요나처럼 사명 받기를 싫어하고 명령을 이행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4장의 요나의 뻔뻔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은 배 밑에서 잠자는 요나를 발견하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했다. 이교도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회교도들이 매일 5번씩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요나의 박넝쿨로 인한 그늘 하나로 기뻐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다. 마지못해 사명을 수행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요나의 삶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내 이웃과 주위에 전해지지 않은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 했던 요나의 다급함이 언제 그렇게 당당하고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할 때이다. 오늘 교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이시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만약 거역을 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엎드려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